

**강서의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1 강서구청장 후보
진교훈**

| | | | |
|-----|-----------------|----|--------------------|
| 배포일 | 2023. 9. 15.(금) | 담당 | 도건 (010-9686-6068) |
|-----|-----------------|----|--------------------|

진교훈 “강서구민, 정쟁 아닌 일 잘하는 구청장 원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강서구 선거사무소에서 현장최고위 개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가 15일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강서구민은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정쟁으로만 치러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안전, 안심, 민생 구청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진 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16일째 이어지는 엄중한 시기에 강서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이 이번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강서구민은 누가 다양한 행정경험을 갖고 구민의 삶과 안전을 세심하게 지켜볼 수 있는 일을 잘하는 후보인가를 묻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박광온 원내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정권의 퇴행과 민주주의 파괴를 멈춰 세워야 하는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라고 정의하고, “민주당은 진 후보와 한 몸이 돼서 강서구의 모든 시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앙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밖에 고민정 최고위원은 “김태우 씨는 강서 주민들과 대한민국에게는 가해자”, 박찬대 최고위원은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자가 다시 또 출마하는 듣도보도 못한 해괴한 상황”이라며 강서구민의 혈세 40억 원을 낭비하게 만든 국민의힘 구정에 대한 심판을 강조했다.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국회의원들 역시 “정부·여당으로부터 버림받은 민생, 진교훈과 함께 강서구에서부터 확실히 챙기겠다”, “강서의 모든 당원들은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다’는 각오와 결의로 가득 차있다”, “‘나 강서에 살아요’라는 말씀을 하실 때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그런 강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현장에는 박 원내대표를 위시해 정청래 최고위원, 고민정 최고위원, 박찬대 최고위원, 서영교 최고위원, 서은숙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총출동했으며,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강선우 의원, 진성준 의원, 한정애 의원도 동참했다.